

꿈꾸는 교실



나의 숨은 매력 찾기

고민의 시작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무엇 하기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자주 묻곤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여러 대답 중에서 교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선생님, 저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 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잘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와 같은 대답이다. 아마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잘 한다는 것은 특정 교과 공부나 예체능 분야의 재능, 특정 직업적 기능처럼 겉으로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란 그런 기능적 측면 외에도 정서적 감수성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 등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외적인 결과의 비교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 밖의 자신의 장점이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점차 자신감을 잃어간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개성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국어 수업을 계획하여 보았다. 한 편의 수필을 함께 읽고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대하여 탐색한 후 자신의 매력을 주제로 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았다.

수업 스케치



수필 '흔스려운 아나운서' 읽기

수필 '흔스려운 아나운서'를 읽고 글쓰이가 깨달은 점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나는 무슨 꽃?'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통해 매력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매력을 꽃으로 표현해 본다.

나의 매력을 주제로 시창작하기

마인드맵으로 나의 매력을 여러 측면에서 탐구하고 자신의 매력을 주제로 시를 창작한다.

'반짝반짝 시 낭송회'

자신의 창작시를 낭송하고 다른 학생의 낭송을 듣고 평가한다.

흔스려움도 매력이다

수필 '흔스려운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이금희씨가 막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의 경험을 적은 글이다. 자신이 다른 아나운서들에 비하여 예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진한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에 집착하던 글쓰이는 결국 자신의 매력은 조금은 흔스럽고 소박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학생들은 대중 앞에 서는 방송인도 흔스럽고 소박한 모습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다소 신기해하는 것 같았다. 요즘은 어린 중학생들도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여학생들은 흰 피부에 큰 눈, 붉은 입술을 가져야 하고 남학생들은 키가 커야 한다. 모두가 자신만의 개성은 뒤로 한 채 남들이 '예쁘다, 멋있다'라고 평가하는 틀에 박힌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애를 쓰고 있다. 이금희 씨가 아나운서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매력적인 외모 때문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솔한 진행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학생들도 자신만 가지고 있는 빛깔, 자신만의 곁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모두 한 송이의 꽃이다

'흔스려운 아나운서'를 읽은 후,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사진과 가장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진을 고르게 했다. 이후 학생들이 사진을 고른 결과를 함께 나누었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이 활동에 이어서 학생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매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꽃검색'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나는 무슨 꽃?' 활동을 하였다. 셀카를 찍으면 나와 가장 닮은 꽃을 검색하여 알려주는 앱인데, 꽃의 이름과 함께 그 꽃의 매력을 함께 알려준다. 학생들은 검색 결과를 서로 나누며 매우 즐겁게 활동하였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은 고유한 색과 향기를 가진 한 송이 꽃이라는 것을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다.

반짝반짝 수 십 개의 매력이 빛나다

자신의 매력을 주제로 시를 쓰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마인드맵을 통해 자신의 외모적, 성품적, 재능적 측면에서 매력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만들어 보았다. 그 외에는 시를 창작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더하지 않고 학생들이 맘껏 자신의 매력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시짓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시를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에게 낭송을 해 주었다. 다소 투박하고 덜 세련된 시였지만, 학생들의 시는 10대 특유의 발랄한 솔직함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매력을 자신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순간 아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매력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이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든 시가 감동적이었지만, 그 중에서 읽는 이를 웃음 짓게 하는 재기발랄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학생작품

나는 똥처럼 쓸모가 많고
나는 설사처럼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으며
나는 변비처럼 노력을 많이 하고
나는 배변처럼 중요한 존재다.

나는 똥이다.



함께 그리는 수업



본 수업을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시창작 수업을 하기 전에 화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시를 먼저 감상하고 더불어 비유적 표현의 효과, 시의 이미지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수업이 선행된다면 학생들이 시를 짓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창작 수업이 시의 표현 형식에 치중하게 되면 자칫 진솔하고 개성적인 창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수업을 타 교과와 연계하여 주제통합수업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술 교과의 표현 활동과 융합하여 창작시를 시화작품으로 표현한 후 학급문집을 제작할 수 있다. 또는 문집의 형태가 아니라 정육면체 상자의 각 면에 시화를 표현하여 교실이나 복도에 게시하면 다른 학급 학생들도 시를 함께 감상하고 학생들 간에 더 많은 피드백이 일어날 것이다.

또 기술·가정 교과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단원과 연계하여 자아정체성에 대하여 깊은 탐구 및 토의 토론 활동을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국어 활동지

중학교
학년 국어

번호 ()

‘끼’를 살려 ‘꿈’을 향해 가는

학년 ()반 ()번 이름()

단원명

프로젝트명

‘나의 매력’을 주제로 시 창작하기

성취기준

활동 1.

존스러운 아나운서 읽기

존스러운 아나운서

이금희(李錦姬)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 시절 나는 무척이나 존스러웠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가 되어서도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대학생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화장도 할 줄 몰랐고, 머리도 손질할 줄 몰랐으며, 옷도 청바지 외에는 별로 없었다. 그러던 내가 취직을 했는데, 그곳은 유행의 최첨단(最尖端)을 걷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방송국이었다. 시골 사람 서울 구경이 그랬을까? 신입 사원 연수(研修) 때부터 나는 어리벙벙하기만 했다. 신입 사원들의 연수를 위해 단체 합숙을 하는 첫날, 순진하게도 나는 안내문에 쓰여 있는 대로 세면도구와 속옷 몇 벌만 달랑 챙겨 갔다. 하지만 나와는 달리 동기 아나운서들은 여벌의 옷가지들은 물론, 드라이어와 화장 도구 일체를 챙겨 와서는 갖가지 화장을 풀어 놓고 아침마다 정성껏 얼굴을 두드리는데, 제대로 된 화장이 그런 것인 줄 그 때 처음 알았다. 그 친구들에 대한 나의 열등감은 아마도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화면에 모습을 비춰야 하는 직업이라서 아나운서에게는 화장, 머리 모양, 의상 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도통 관심도 없었고 눈썰미도 없었던 나로서는 동기들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세련된 그들에 비해 존스러운 나를 누가 눈여겨보거나 할까 하는 열등감과 함께, 어쩌면 프로그램에 나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들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뱃새가 황새 따라가는 짓을 하기 시작했다. 동료 아나운서들이 값비싸고 유명한 상표의 옷을 입으면 나는 남대문 시장이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로 가서 비슷한 의상을 사들었다. 화장품도 이것저것 사서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다. 눈썹도 더 진하게, 입술 색깔도 더 강렬하게……. 원래 잘 하는 화장일수록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법인데, 나는 무조건 진하게 그리고 발랐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딘지 내 색깔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았다. 화면에 나온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어색하기만 했고, 옷도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불편했다.

그러면서 점차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나다움'이었다. 아무리 그들을 의식하고 흉내 낸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나이다. 나는 어떻게 해도 그들이 될 수 없다. 그들을 쫓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나다운 것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당시에 내가 맡았던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신입 사원 시절 나는 어린이 동요 대회 프로그램과 고향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맡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그 프로그램의 당사자들은 나의 그 존스러움, 즉 소박함을 높이 사서 나를 프로그램 진행자로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모자란 부분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존스러움도 순수함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세련되지 못한 점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잣대이다. 기준을 남에게 두고 그에 맞추려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가 침대 하나를 마련해 놓고 그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몸을 잡아 늘이고, 침대보다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스스로 그런 침대에 맞춰 늘이고 줄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노릇인가. 그보다는 내 체구에 맞지 않으면 침대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결국 나이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제대로 봐 줄 리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활동 2.

생각 나누기

1. 윗글의 글쓴이가 방송국에 입사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무엇입니까?
2. 윗글의 글쓴이가 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윗글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활동 3.

내 삶을 돌아보기

1. 칠판에 붙인 사진 중에, 나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진 2장과 나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진 2장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 봅시다.

구분	사진 번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장 매력적인 사진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사진		

2. 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활동 4.

나는 무슨 꽃?

1. 스마트폰의 '꽃검색' 앱을 활용하여 자신과 닮은 꽃을 찾은 후 이미지를 저장하여 아래에 그려 봅시다.
(촬영할 때마다 다른 꽃이 검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촬영해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라서 그리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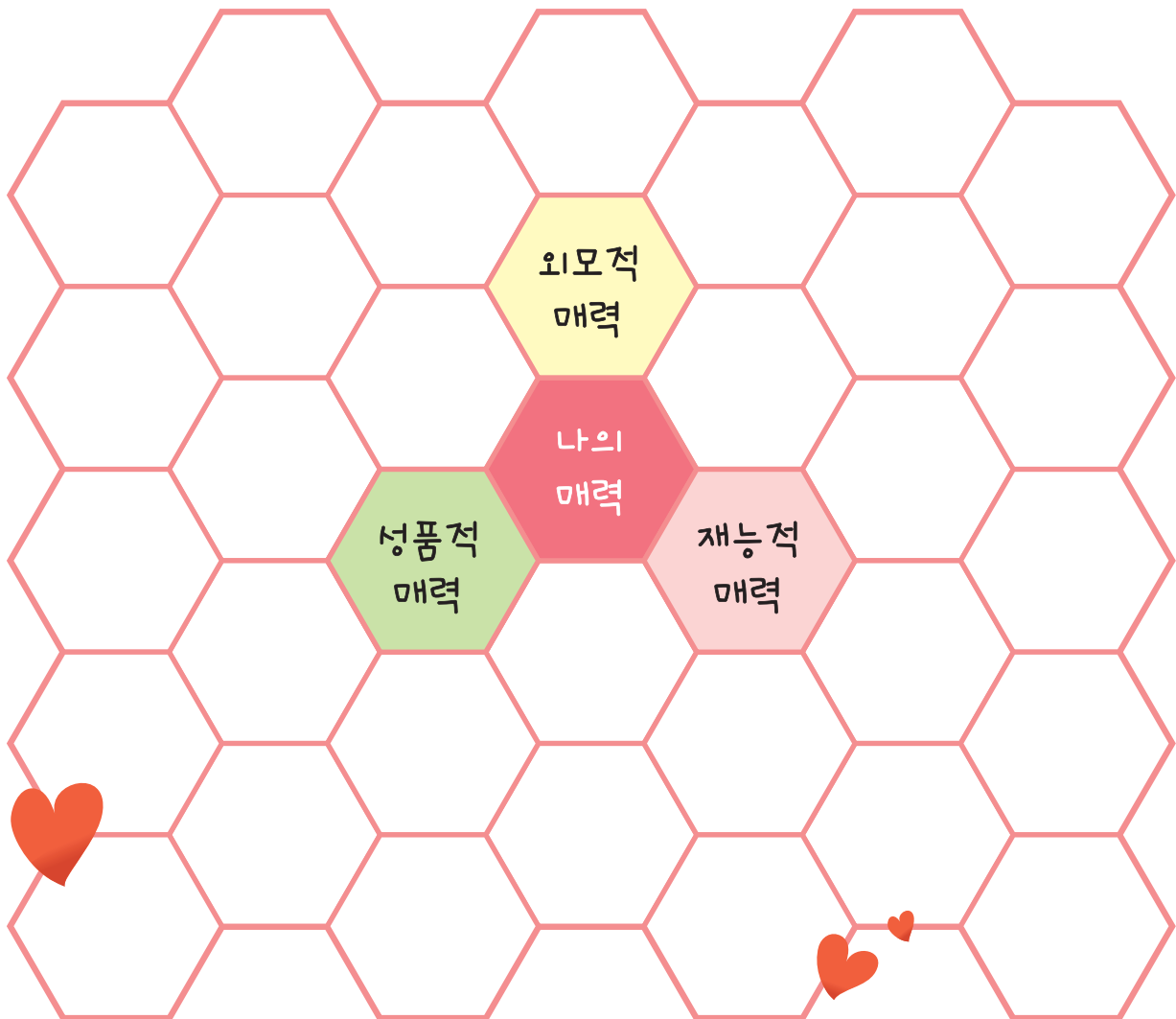
2. 위에서 찾은 꽃은 나의 어떤 매력과 닮아 있나요?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세 가지 적어보고 친구들에게 나의 매력 포인트를 소개해 봅시다.



활동 5.

‘나의 매력’을 주제로 시창작하기

1. 아래의 칸을 이용하여 나의 매력에 대하여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2. 나의 매력을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 봅시다.

3. 나의 매력을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제목을 만들어 봅시다.

4. 위의 활동을 정리하여 한 편의 시로 완성해 봅시다.



활동 6.

친구들의 시 감상하기

1. 친구들이 낭송하는 시를 듣고, 칭찬해 주고 싶은 시를 골라서 칭찬의 말을 적어봅시다.

내가 고른 시	칭찬의 말

